



군종주보

2017년 4월 16일(제819호) 예수 부활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2017년 부활메시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친애하는 교구민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평화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1

사랑하고 존경하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처형되시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림으로써 사랑과 존경의 마지막 표현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만이 아니고 죽으신 후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충실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시 후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으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교회 전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는 전례와 관련하여 “기념일”에서 “축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이 성녀의 삶이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원천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1코린 15,3-6) 그러면서 바로 사도께서는 “팔삭둥이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대로 바로 사도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박해에 앞장섰던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능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열성에 넘쳤던 바로를 사도들의 설교나 가르침으로는 개종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체포하려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시어 하늘에서 직접 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 사도를 개종의 길, 회개의 길로 이끄신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체험을 한 바로 사도는 주님 부활 신앙의 위대한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1코린 15,17) 라고 외치듯 선포하고 계십니다. **(2면에 계속)**

부활 성야

- 제 1 독 시 창세 1,1-2-2<또는 1,1.26-31>
- 회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 2 독 시 창세 22,1-18<또는 22,1-2.9>.10-13.15-18>
- 회 답 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제 3 독 시 탈출 14,15-15,1 >
- 회 답 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제 4 독 시 이사 54,5-14
- 회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제 5 독 시 이사 55,1-11
- 회 답 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제 6 독 시 바룩 3,9-15.32-4,4
- 회 답 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제 7 독 시 예제 36,16-17 >.18-28
- 회 답 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시 집 로마 6,3-11
- 회 답 송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특 음 마태 28,1-10
- 영 상 제 송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2017년 부활메시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을 맞으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오 사람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심을 증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합시다.

2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고통에서 영광으로”라는 변화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종류의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의 병이 주는 고통, 마음의 병이 주는 고통, 가족이 주는 고통, 사회가 주는 고통, 국가가 주는 고통, 세계가 주는 고통 등 많은 종류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주로 오지만 내 안에서 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치유를 청하고, 주님께서 자비로이 치유해주시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얼마 전 광주대교구가 고흡군과 함께 만든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초대 받아 참석했습니다. 이 영화가 곧 개봉되면 우리 신자들이 많이 관람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화 감상이 하나의 훌륭한 피정이라 생각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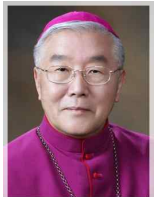
전남 소록도에서 40년 넘게 한센병 환자와 그 자녀 들을 돌보다가 2005년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두 간호 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우리 관심에서 멀어진 한센병으로 고통 받던 많은 환자와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특징인 “섬김”의 자세로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우유를 준비하여 모든 환자와 그 자녀들 에게 갖다 주고, 전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환자들의 상처를 만지고 치료해주었 으며, 때로는 몇 시간씩 걸리는 치료도 기쁘게 해 주었고, 늘 환자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간호활동과 애덕 활동은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이 겪던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고 마음의 고통까지도 치유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봉사가 이제 더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고국 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고, 2005년 11월 폐가 될까

싶어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광주 대주교님께만 말씀드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상상조차하기 싫을 정도의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 유다 이스카 리옷의 배신,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인 베드로의 떠나감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함, 불의한 심판, 침 뱉음과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심, 머리에 가시나무관을 쓰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심, 무거운 십자가를 지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 시간 동안 못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심 등 참으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아시고, 이 고통을 받아드리 셧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 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변화인지요!

3

친애하는 교구민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미 찬송 드리면서 “하느님,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심을 굳게 믿나이다.”라고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받아들이고 견디며, 고통 안에 숨겨 있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고통 후에 찾아오는 영광의 희망을 지니도록 합시다. 한 고통이 지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고통은 오랜 기간 심지어는 일생 동안 지속하는 것을 경험 하지만, 미래에 올 영광, 특히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대한 희망 안에서 고통을 인내하고 고통에서 배우도록 합시다. “고통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라는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2017년 예수 부활 대축일
진주교 교구장 유수일 F.히비에르 주교

예수 부활 대축일

제 1 독 시 사도 10,34-37-43

회 답 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 2 독 시 콜로 3,1-4<또는 1코린 5,6-8>

부 속 기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왔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판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요한 20,1-9<또는 루카 24,1-12 또는 저녁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영 성 제 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상화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



페루지노가 그린 이 그림은 하단에는 무덤의 문이 열린 석관과 석관을 둘러싼 잠든 보초병, 그리고 위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

참혹한 수난의 고통 상처들이 오상 외에는 사라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중에 떠올라 계시며, 이를 두 천사가 받들고 있다. 예수님은 부활의 깃발을 들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손짓을 하시고 계시며, 아래 잠든 보초병들 또한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원근법이 정확하게 적용된 석관과 후경의 배경이(동시대 인물들에게는) 현실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모든 것은 매우 고요하고 정지된 듯하나, 나부끼는 깃발과 예수님의 옷자락이 조용하게 생동감을 선사해주고 있다.

페루지노는 라파엘로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그림에서도 부활한 예수님과 천사들, 그리고 심지어 군인들 까지도 화가 특유의 고요한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다.

페루지노(1446-1523)
1499년경 작, 패널 위 유화 233 X 165 cm
비티칸 미술관, 이탈리아 로마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예수 부활 대축일 : 제주해군 김평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때: 4월 16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목요일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김범휴 빈첸시오 010-4521-8194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